



# 본회, 절편녹용 협상 직접 참여 추진

- 농림·복지부와 6월 1일 간담회 열어 대책 협의 -

국내 양육농가 피해가 예상되는 절편 녹용 수입 협상에 생산자 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.

본회는 오는 6월 25일로 예정된 제 5차 한·뉴 경제공동위원회 절편녹용 실무 협상시 양국 생산자 단체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를 가질 것을 뉴질랜드 양육위원회에 정식 제안했다. 또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양국 생산자 단체간 대화 및 협상 참여 이유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.

본회는 이와 관련, 지난 6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생산자 단체간 간담회를 가졌다.

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한약담당관 실 박상표 사무관은 “뉴질랜드는 이번 제 5차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해 금년내 절편녹용 품질기준 확정 및 2003년부터 수출가능 조치 여부를 강도 높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히고, “이미 금년내 절편 품질기준 제정은 뉴질랜드와 합의된 상황이고 가공시설 요건마련 및 확인절차, 법령 적용 문제 등 기술적 검토부분만 남아있다”고 설명했다. 또 “이번 회의에서 수입허용 시기 및 물량 조절기간 설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하나 뉴질랜드는 97년부터 끌어온 협상인 점을 들어 즉각적인 수입허용을

강하게 요구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이에 대해 본회는 녹용 품질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가격만으로 좌우되는 현 시장구조 하에서 절편녹용 수입은 국내양육업의 붕괴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들어 수입반대 입장을 거듭 주장했다. 본회는 이에 따라 녹용 지표물질 선정 및 산지별·기원별·사육방법별 녹용의 효능 차이에 대한 연구를 정부차원에서 조기 진행, 품질에 따른 선택여건 조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.

본회는 또 △품질기준 등 제정시 생산자 의견 적극 수렴 △국산녹용 경쟁력 제고 추진 등을 감안 최소 5년 이상의 개방유예기간 및 물량제한 기간 설정 △양육산업 종합 육성지원 대책 조속 마련 △양국 생산자간 대화 지원 및 정부참여 4자회의 적극 추진 △식약청장 ‘절편녹용 수입 불가’ 발언 계기 수입협상 전면 재검토 △절편생녹용 축산물용도 수입 억제 등 의견을 제시했다.

이와 관련 본회 관계자는 “한·뉴 생산자간 대화를 통해 정부간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들을 협의하고자 한다”고 말하고, “또 이 결과를 양국정부에 직접 설명하지는 것이 4자회의의 취지이며, 뉴 양육위원회가 지난 1월 우리의 이 같은 제의에 동감을 표한 바 있어 성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”고 밝혔다. **한국양육**